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음 12월 2일) 제19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좋은 일자리로 활기찬 경제도시 구현

전주시, 5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는 탄소국가산업단지 입주할 우량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생활임금 확산과 감정근로자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전주형 일자리·노동 모델을 구축하고 탄소·드론축구·3D프린팅·스마트시티·ICT·금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8년도 경제산업 분야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키워드로 한 5대 추진 전략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미래 먹거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수출전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전주형 일자리·노동모델 구축·확산이다.



개혁신당 창당지지 확고

17일 전주교육대학교 학생회에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층 개혁신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탄소산단 입주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

3D프린팅 등 육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특히 좋은 일자리로 활기찬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유치와 청년창업, 청년취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통과에 따른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투자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조기 착수하고 우량기업 유치로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청년상상놀이터와 전주시청 청년몰 등을 중심으로 청년창업보육 공간 제공 및 멘토링 지원 등으로 청년창업 시범도시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과 진로상담·교육, 청년활동보조금 지급을 통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채용 확대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인당 최대 480만원) △청년 취업지원(월50~65만원, 12개월) △중장년 취업지원(월70만원, 12개월) 등을 추진하고 △청년 희망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청년소통공간 '비밀' 활성화

개혁신당 창당지지 확고

화 △청춘시티 워딩 △지식나눔 강연회 등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5개년)'을 바탕으로 탄소·드론축구·3D프린팅·스마트시티·ICT·금융산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형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탄소섬유에 차중된 산업의 영역을 활성탄소 R&D와 제품 상품화까지 확대하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활성탄소제품 상품화 토달솔루션 사업 △탄소복합재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D프린팅의 탄소융복합 신소재개발과 보급·확산 △지속성장 가능한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 △ICT융복합산업 기반 조성 등 100년 먹거리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금융카카오톡 및 포럼 △대학생 금융 현장체험 등도 전개한다.

나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소년용 드론축구공 제작 △전국드론축구대회 개최 및 해외 홍보·보급 추진 △드론축구부 예술공연 △드론축구협회 설립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중소기업 양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출전문 중소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전주형 성장사다리 강소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특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 200개사 방문을 목표로 기업 가 살리기를 지속 전개해 기업의 건의사항은 끝까지 해결하고 신규사업으로 △기업애로 솔루션 전담반 운영 △지역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 추진 △전북중소기업연수원 유치 △창업기업 20개사 대상 기 살리기 인큐베이팅 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기업 입주에도 해소 및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방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임대형 전주시식산업센터 2개소 건립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시는

각 점포시장별로 시설·경영 현대화 및 특성과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화재공제로 지원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전북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나들가게 육성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등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끝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전주형 일자리·노동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고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강소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콜센터 상담원 힐링캠프 △좋은 알바탐사단 7기 운영 및 실태조사 △노동인권친화사업장 발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2018년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MB “최근 검찰수사 정치보복… 내게 직접 물어라”

문무일 총장 “법적 절차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다스 관련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처음부터 자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 직접 물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다”고 전했다.

그는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으므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제발시키고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수사를 받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왔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다”고 전했다.

그는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으므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안철수, 보수야합에 빠져 청년들의 문제 외면 중”

정동영 의원 “청년 부채 보유액 전년보다 42% 폭증 개혁신당, 이들의 삶 바꾸는데 앞장서야” 주장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7일 “청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안철수 대표도 청년의 삶과 무관한 보수야합과 정치공학에 빠져 청년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개혁신당이 청년의 삶을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인용,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보유액은 2380만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2% 폭증했다”며, “청년의 삶을 파괴하게 만든 것은 OECD 최고 수준의 교육비와 살인적인 주거비”라고 진단했다.

또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고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지

만 여의도 정치는 청년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공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사립대학이 청년 교육비, 주거비, 교통분담토록 법 개정 ▲적정임금 제도화 ▲임금체불 및 폐막기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생활비 지출 증가 → 노동소득 부족 → 청년 부채 증가 → 부모세대 부담 증가 → 결혼 포기 → 저출산의 악순환을 개혁신당이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신당은 재벌의 나라, 상속자의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대개혁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